

광주·전남 初選들은 ‘열공중’

18대 국회개원을 보름 남짓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초선 의원 당선자들은 당선인사를 겸한 지역 현안 파악과 국회 등원준비에 한창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들은 벌써부터 4년 후를 대비, 지역 구석구석을 훑으며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으며 국회상임위 진출에 필요한 공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구 을) 당선자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산구 선진사, 용진사 등을 찾아 지역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주민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18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비롯, 한반도 대운하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조영택(민주당·광주 서구 갑) 당선자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

사에 참여, 민심을 파악하는 등 지역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 당선자는 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국회 등원에 대비하고 있다.

김재균(민주당·광주 북구 을) 당선자는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당선인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역 민심의 흐름을 살피며 국회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 당선자는 특히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문화콘텐츠 분야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동료 당선자들에게도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최근 보좌진 구성을 완료한 김 당선자는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하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전남대 등 대학 강연에도 나서고 있다.

김영록(해남·완도·진도) 무소속 당선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일

이용섭·조영택·김재균·김영록 당선자 등
첫 등원 앞두고 지역 현안·민심 파악 분주
상임위 진출 대비, 관련 자료 수집·분석도

한 경험을 살려 지역 관련 예산을 미리 챙겨보는 등 등원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무려 3개 군에 이르는 만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서울에서 개최되는 향우회·체육대회 등을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고 지역 현안 파악에 열중이다. 김 당선자는 또 농·수협 간담회에 참석하고 농어촌 활성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농어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윤석(무안·신안) 무소속 당선자는 국회 등원 전까지 당선인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역에 소홀히 하는 바람에 낙선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좌진 구성도 뒤로 미룬 채 지역민과의 만남에 올인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와 함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진입을 겨냥, 농어업 관련 분야 연구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농어업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한우 농가에 ‘희망’을



송기동
사회2부 차장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소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 인상으로 한우 농가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최근 합평과 영광지역 축산 농민 2명이 잇달아 자살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합평군 월야면에서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상근(65)씨는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마련했다.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실천에 옮겨 왔다.

김씨는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 일반 사료 외에 버섯찌꺼기 등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농가에서 키운 한우가 대부분 중간 등급인데 반해 김씨 한우는 10마리중 2~3마리가 특등급(1++)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새로운 보조사료를 시험하고 광주·영광 국도 22호선 도로변에 자신의 한우 직판장을 만드는 한편 당나귀 승마 체험장 등을 구상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부는 협상타결 후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해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우농가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농기계 보조,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김씨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축산농가들이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축산분야는 일반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졌던 많은 젊은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농업소득을 올린 전남 농업인 850명중 축산분야가 471명으로 55.4%를 차지했다.

이제라도 생사의 기로에 선 한우농가에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을 기대한다.

/song@kwangju.co.kr

시·도의회 의장 선거전 시동

市의회, 강박원·진선기 의원 등 초·재선그룹 혼전
道의회, 김재무 부의장·박인환·이일형 의원 3파전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오는 7월초로 예정된 의장 선출을 1개월여 남겨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동료 의원들을 접촉,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세를 확장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재선과 초선 의원이 모두 의장선거에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재선 의원의 경우 강박원(광산구 1선거구) 현 의장을 비롯, 김후진(북구 2)·나종현(남구 2)·손재홍(동구 2)·유재신(광산구 2)·이정남(광산구 3)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초선 의원 중에서는 진선기(북구 1) 의원이 강력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장의 경우 최연장자이며 지난 2년간 특별한 흠집이 없다는 점에서 자전타전으로 하반기 의장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후진 의원의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온 점과 부의장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기 의장선거에 출마했다가 1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나 의원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장 출마를 위한 운동들) 시작하겠다”고 하

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손 의원과 유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후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과 초선인 진 의원은 물밑에서 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인 김재무(광양2선거구) 의원을 비롯 박인환(구례2) 의원과 이일형(고흥1) 의원 등 모두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 부의장은 이번이 첫 번째 의장직 출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으며, 동료의원들과 화합해왔다는 점에서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8대 의회 전반의 의장선거에 출마했다가 김종철 현 의장에게 2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박 의원 역시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하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4선의 관록을 내세우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하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을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는 7월 6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정세균 의원 등이 11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최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희스

정세균 굳히기냐 추미애 바람몰이나

민주 당권 물밑경쟁 치열

오는 7월6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의 당권을 노리는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의 물밑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의 대면접촉을 늘려가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탄한 성벽을 쌓아가면서 대세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4년의 공백을 딛고 컴백한 추 당선자는 지방 순회방문을 통해 당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외곽으로부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 의원은 아직 전대 대의원 선출 방식 등 경선 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중진 원로들과 후배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경선 틀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전국순회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했던 추 당선자는 이날 KTX편으로 부산을 방문, 범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3일 오전 부산시지부 개편대회에 참석해 일반 당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동대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추 당선자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동안 4년전 ‘삼보일배’를 하면서 무릎걸음으로 찾아갔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며, 충청과 강원 지역 방문도 앞두고 있다. 일반 유권자와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인망 행보’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경선 후보간 짝짓기 경쟁

통합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6~27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후보 간 물밑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 출마표를 던진 후보는 김부겸 원혜영 이강대 홍재형 의원(가나다순) 등이다.

김 의원은 ‘1번 타자론’을 내걸었다.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안타를 치든, 포볼이나 데드볼로 나가든 무조건 출루에 성공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듯이 유연한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

원 의원은 ‘대안과 신뢰’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고 부천시장, 풀무원 대표, 국회의원을 두루 거치는 등 풍부한 경력과 관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안있는 강한 야당론’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 투쟁일변도의 야당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수도권 대 호남권’이라는 대내 지역적 역학구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이 나서야 한다는 충청 역할론과 함께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험을 부가해 정책의 강약과 여야의 조화로운 관계를 연출할 민주당의 감독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새종투어 여행상품을 우리V카드 결제시 포인트 적립 혜택

할부유 최소 10만원부터

신한카드

새종투어 여행상품

Welcome 1: ₩100,000 → ₩200,000

Welcome 2: ₩200,000 → ₩320,000

Welcome 3: ₩300,000 → ₩330,000

가족여행 패키지

₩200,000 → ₩140,000

₩200,000 → ₩99,000

장사/장가계산

₩100,000 → ₩199,000

₩200,000 → ₩319,000

₩300,000 → ₩349,000